

癸酉, 庚辰, 戊午字에 對하여

白 麟

머 리 말

李氏王朝 第3代王 太宗3年(1403) 癸未에 처음으로 金屬活字를 鑄造하였는바 그 後부터는 鑄字를 새로 만들어 書籍을 印刷할 때 마다 그 圖書의 後尾에 鑄字跋을 붙이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字名은 그 鑄字가 만들어진 年度의 干支로써 命名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 圖書의 印出한 年代를 考定하는데 있어서는 活字의 名稱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特定한 活字本의 標本을 發見하여 그 字名을 定하고 그 印本의 印出年代를 考定하는데 基準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古活字에 對한 研究는 오래전 부터 活潑하게 이루어져서 이에 關한 論文도 많이 發表되었거니와 現在로는 古活字의 系譜가 거의 完成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겠다. 그러나 아직도 字名이 밝혀져 있지 아니한 活字가 있는가 하면 그 字母가 어떤 것인지 不明하여 字樣을 모르는 것도 있다. 특히 壬胤을 前後하여 鑄造된 宣祖 6年의 癸酉字, 宣祖 13年의 庚辰字, 그리고 光海君 10年의 戊午字 等の 경우에 있어서는 그 字母는 勿論 鑄造事實에 對해서까지도 異說이 많다.

그리하여 이들 活字印本의 確實한 標本을 찾는 데 異見을 던지 못하고 있다.

筆者도 「韓國古活字本에 對한 研究」에서 癸酉, 庚辰의 兩活字에 對하여 言及한 바 있지만 最近에 와서 크게 誤解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1966年 10月 15日 서울大學校開校20周年記念을 위하여 同校附屬圖書館에서 貴重圖書展示會를 가진 바 있는데 東國大學校圖書館의 千惠鳳 課長이 參觀하고 癸酉字 및 庚辰字에 對하여는 筆者가 쓴 「韓國古活字本에 對한 研究」에서나 이번 展示會目錄에서 誤解가 있는 것 같으니 再考할 必要가 있다고 親切히 指摘하여 주시기에, 그 後 注意깊이 再調査하였으나 資料가 不足하여 그 解決이 難望하던 차에, 서울大學校出版部の 柳時溥 支配人께서 이 方面에 많은 識見을 가지고,

또한 鄉里에도 많은 古籍을 所藏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柳先生을 찾아 謁하고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先生의 所藏本中 宣祖年間に 印出된 活字本 20餘冊을 멀리 安東에서 올려다가 보여주시어 所望하던 問題의 解決에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實錄에서 關係記事를 추려 分析檢討하므로서 이들 活字의 鑄造年度, 字母, 字樣, 그리고 그 標本이 될 수 있는 印本을 確認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석연치 못한 몇 가지의 의문이 남아 있음을 알면서도, 筆者가 이들 活字를 잘못 알고 紹介한데 對하여 同學의 諸先輩님께 깊이 사과를 드리는 의미에서 그동안 蒐集 調査한 몇 가지의 事實을 들어 여기에 訂正 紹介하려고 한다.

癸 酉 字

世宗 16年에 鑄造된 甲寅字는 宣祖朝에 이르기 까지 約 140年間に 걸쳐서 加鑄 或은 補鑄되면서 印書에 使用되어 오다가 宣祖 6年(1593) 癸酉에 이르러 完全한 改鑄가 이루어 졌던 것이다. 卽 柳希春의 眉巖日記草 癸酉 11月 6日條에

「甲寅字鑄成鐵 先受出四百六十斤一兩一錢 鑄字練正者三百九十七斤三錢 餘鐵十六斤二兩 鑄末二十七斤」

이라는 記錄이 보인다.

柳希春[1513(中宗 8)—1577(宣祖 10)]은 李朝 中期의 學者로서 字는 仁仲, 號는 眉巖, 諡號는 文節, 본관은 善山이다. 1538年(中宗 33) 文科에 급제, 司諫院의 正言으로 乙巳史禍에 禍를 입고 濟州, 鍾城에 귀양가서 19年間 귀양사리를 지냈고 宣祖初에 풀려나와 副提學을 지낸 분이다.

그러나 柳希春 自身이 이 癸酉字 鑄造에 關與하였는지에 대하여는 言及이 없고 또 宣祖實錄 同年條에도 癸酉字의 鑄造에 關한 記事는 실려 있지 않다.

다만 正祖實錄 卷45, 20年 丙辰12月條에 보면 「成宗朝有辛卯字癸酉字……云云」한 癸酉字의 名稱이 보이

는데 이것은 成宗 24년의 癸丑字를 癸酉字로 誤記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그리고 正祖實錄 卷4, 元年 丁酉 8月條에 보면 「鑄字成 世宗甲寅命墩等 以孝順事實爲善陰鑄字範 銅爲字 凡二十餘萬字 俗稱衛夫人字是也 至宣廟重 修其字…云云」

한 記錄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宣祖時에 甲寅字體의 活字가 改鑄되었다는 事實을 認定하였으나 그것이 몇 年에 重修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重修라는 말을 使用하였는바 그 뜻을 2次에 걸쳐서 改鑄하였다는 말인지 도무지 理解가 가 지 않는다.

어쨌든 柳希春이 自己의 日記中 宣祖 6年 癸酉 11月 6日條에서

「甲寅字鑄成鐵」

이라고 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甲寅字의 改鑄가 있었던 것은 事實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宣祖實錄 卷七, 六年 癸酉 三月條에 보면

「上曰 此言是矣 希春又曰 字有新舊 舊字磨盡而微 細 新字大而明白 故字有雌雄 上曰 鄉見 世宗朝印冊 乎 其時百事皆精微 而至於印冊 亦甚明白 意 其墨不 但松烟而……云云」

하여 新舊字가 있었다고 하는바 新字라는 것이 바로 癸酉字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活字는 眉巖日記의 癸酉 11月 6日보다 훨씬 앞서서 만들어 졌을 일이다.

그러나 이 活字의 鑄字敍이나 또는 癸酉年以後刊行의 甲寅字體印本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活字로 印 出된 同時代의 內賜本이 있어야만 明確한 立證을 세울 수 있는데 그와 같은 事實이 發見 되지 않아 이 癸酉 改鑄字의 鑄字事實에 對한 說이 區區하다.

金斗鍾博士는 「書體上으로 보는 近世朝鮮 活字體의 變遷」의 活字表에서 宣祖13年의 庚辰改鑄을 再鑄甲寅 字로 定하고 癸酉字는 未 鑄었다. 李乘岐先生 「韓國書 誌의 研究(下)」에도 癸酉鑄字에 對한 말은 없고 「庚辰 字…(改鑄甲寅字) 宣祖13年庚辰 (1580)에 甲寅字를 一 大 改鑄하다」라 하여 庚辰字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李仁榮氏는 癸酉字에 關하여 「甲寅字는 宣祖 6年에 깨끗이 改鑄되거 까지 實로 140餘年의 긴 세월 에 걸쳐 使用되었으며 改鑄甲寅字도 壬辰亂의 直後까 지 使用되었다는 點이다」라 말하고 印本의 例로서 李 仁榮氏는 「文祿役直前의 朝鮮活字」에서 宣祖16年刊의 靖節先生集, 10卷 2册과 萬曆34年(宣祖39年)丙午 朱之 蕃의 序文이 있는 許蘭雪軒集 1卷 1册의 2種을 들어 宣祖朝의 改鑄甲寅字 印本의 例로서 提示하고 있다.

이 두册은 筆者가 아직 直接 目見치 못하여 무어라

말하기 어려우나 氏의 調査한 바가 틀림없는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癸酉改鑄야말로 그의 말대로 大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字母는 틀림없이 甲寅字體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華山書林의 李聖儀氏의 「古銅活字標本書目」 에는 宣祖13年의 庚辰字에 對한 말은 없고 그보다 앞 서 만든 癸酉字 印本으로서 다음과 같은 書目을 例示 하고 있다.

「論語諺解 全20卷 聲聲點有 宣祖朝刊本 黃義敦氏 3 册」

資治通鑑綱目思政殿訓義 全150卷 宋 朱熹 撰. 世宗 18年丙辰字로 爲寫本하야 宣祖6年에 改鑄된 것이라(大 字는 丙辰字요, 中小字는 甲寅字也라) 宣祖十年刊本 (明 萬曆5年, 西紀1577年) 李氏 20册.

排字禮部韻略. 全6卷 宋 丁度 撰. 宣祖朝刊本. 黃義 敦氏 1册.

東萊博議 全2卷. 宋 呂祖謙撰. 劉紫山 註. 宣祖朝刊 本. 華山書林 一枚.

錢註靖節先生集 全6卷. 晉. 陶潛 著. 宣祖16年刊本. (明 萬曆十一年, 西紀1583年) 李氏. 2册.

海東辭賦 全2卷. 高麗 李奎報外三人 我朝徐居正外 12人等詩賦蒐集書記. 宣祖朝刊本. 華山書林 1枚.

文科試榜目. 全1卷 嘉靖43年甲午 9月日 李珣外 生員 榜目也. 宣祖朝刊本. 黃義敦氏 1册.

小學諺解 全6卷. 何士信集成 吳訥集解(四聲點有) 宣 祖朝刊本. 黃義敦氏 3册.

그러나 이들 印本이 모두 癸酉字印本인지, 아닌지에 對해서는 좀 더 진지한 調査가 必要하다고 본다. 왜냐 하면 氏가 癸酉字本이라고 定한 「排字禮部韻略」만 해 도 筆者가 調査한 바, 이册은 乙亥字本과 顯宗朝의 改 鑄甲寅字本만이 現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그 보다도 「海東辭賦」는 金錫胄撰으로서 顯宗時의 改鑄甲 寅本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古銅活字標本書目」에 癸酉字印本의 標本으 로서 例示하고 있는 「東萊博議, 上, 下」는 그 活字의 字樣, 版心, 特히 魚尾의 形式으로 보아 顯宗 9年의

戊申字印本인 것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事實에서 볼 때 李聖儀先生은 宣祖朝의 改鑄甲寅字印本과 光海君以後 顯宗時에 印出된 所謂 三鑄甲寅字本의 識別에 혼돈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어렸든 지금까지의 活字研究에서 보전대 癸酉字에 關係서는 그 鑄造事實을 否認하는 學者가 있는가 하던 이 活字의 鑄造事實을 認定하는 學者들도 周到한 研究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具體的으로 그 印本의 實例를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明宗以後 宣祖25年 以前の 所謂 改鑄甲寅字本으로서 刊記가 없는 것은 그 年代를 考定할 方法이 없으므로 모두 改鑄甲寅字本으로 通稱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日人 學者인 田川孝三氏는 그의 論文「庚辰字本孝經諺解 및 小學諺解」에서 癸酉甲寅字에 對하여 言及하기를 “癸酉6年의 改鑄甲寅字 刊本은 반드시 전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 例로서 刊年의 明確한 것은 宣祖16年 萬歷11年 (1583) 刊 金時習의 梅月堂集과 晉 陶潛의 箋註靖節先生集 著를 例示하고 있다. 그런데 梅月堂集은 中宗16年 (1521) 刊本의 重刊으로 正德辛巳 (1521) 李耕의 序, 尹春年의 梅月堂先生傳 外에 萬歷10年7月15日 兩館大提學 李珥撰의 金時習傳이 붙어 있고, 萬歷11年 2月 兩館大提學 李山海가 跋을 加한 것이다.

그리고 靖節先生集은 萬歷11年3月3日 判教寧府事 鄭惟吉의 奉教跋이 있고, 同年 9月 刑曹佐郎 沈友正에 對한 內賜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活字는 初鑄字와 比較하건대 그 字形의 端麗 雅醇한 것이 遜色이 없는 것이나, 一字一字 詳細히 檢査하여 보니 筆勢나 字劃에 있어서 많은 相違點을 發見할 수 있다. 그 刊年으로 보아도 改鑄甲寅字인 것은 틀림 없다”고 말하고 그가 庚辰字本이라고 主張하는 孝經諺解와 小學諺解의 그것과도 相違한 것이라고 하였다.

以上과 같이 이 癸酉字에 對하여는 그 鑄造事實에 있어서 異見이 있으나 筆者는 眉巖日記의 記事는 確實한 것으로 믿고 싶으며, 또 그 字母에 있어서도 甲寅字體인 것이 確實하다.

이제 그간 筆者가 제 나름으로 調査한 癸酉字 印本의 實例를 들어 하나 하나 그 特徵을 알아보기로 한다.

小徵通鑑輯釋, 卷下, [著者未詳]. [宣祖時]

1册(零本) 古活字本(癸酉改鑄甲寅字) 34.4×22.8cm

四周雙邊 半葉匡廓: 24.9×16.9cm. 10行, 1行 17字.

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版心書名: 輯釋

表紙書名: 通鑑輯釋

印: [未詳]

通鑑에 해석을 가한 책이다. 下卷뿐인 零本이라 편자도 알 수 없고 刊年 또한 알 수 없다.

그런데 萬歷11年(1583)에 刊行된 「梅月堂集」과 대조하여 본바 동일한 活字本임이 확실하며 補鑄字나 木活字가 전혀 섞여 있지 않아 印面이 매우 깨끗하여 新活字本임을 알 수 있다. 책에 刊記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宣祖 10年 이전의 刊本이 아닌가 생각된다.

梅月堂集, 金時習(朝鮮)著, [序, 宣祖16年(1583)]

1册(零本) 古活字本(癸酉改鑄甲寅字) 34.2×21.4cm

四周雙邊, 半葉匡廓: 26.4×16.6cm. 10行, 1行16字,

版心: 上下內向花紋魚尾

序: 萬歷十一年(1583)十二月十八日…臣李山海

所藏本: 卷之一外缺

朝鮮王朝 初期의 學者 金時習(1435—1493)의 詩文集이다.

그의 字는 脫鄉, 號는 梅月堂, 本貫은 江陵, 生六臣의 한 사람이다. 어릴때부터 神童이란 이름을 들었고, 首陽大君이 端宗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입산하였다. 특히 그의 著書 金鰲新話는 유명하였다.

卷首에 「……李朝人物之傑然者乎萬歷壬午秋 命大提學臣李珥撰傳以進施藝閣印出其遺稿……翌年各命臣山海序其卷端(中略)萬歷十一年十二月十八日……臣李山海奉教謹序」라는 年紀로써 宣祖十六年(1583)에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宣祖6年 癸酉에 甲寅字가 政鑄되었으니 이책은 同活字가 新鑄된 다음 10년뒤에 印出된 것이다. (高麗大學校圖書館李昌教氏藏)

大學或問, 朱熹(宋)著, [宣祖7年(1574)?]

1册(60張)古活字本(癸酉改鑄甲寅字) 30.8×22.4cm

四周雙邊, 半葉匡廓: 26.4×16.8cm. 10行. 1行18字.

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四書의 하나인 大學을 宋나라 朱熹가 新註한 것이다. 이책도 甲寅字體의 活字本이다. 世宗16年(1434)에 만들어진 甲寅字는 여러번 改鑄되었는데 그 첫번째로 改鑄된 것이 癸酉字이다. 序文이나 跋文이 없으므로 그 刊年을 추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宣祖實錄 卷八 七年甲戌正月條에 「……上命校書館精印四書三經及大學或問 史略二件懸吐以入」이라는 記事로보아 이 책은 宣祖 7年(1574)에 刊行된 癸酉字印本이 아닌가 생각된다.

中庸或問, 朱熹(宋)撰, [宣祖時]

1册(84張)古活字本(癸酉改鑄甲寅字?) 37.6×22.4cm.

四周双邊, 半葉匡廓: 26.4×16.8cm. 10行, 1行18字.
注双行, 版心: 上下細花紋魚尾
印: [江都內府舊藏]

四書의 하나인 中庸을 宋나라 朱熹가 新註한 것이다.
이 책 역시 癸酉字刊本인 듯 한데 刊年을 確證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의 大學或問과 같은 活字本이며 같은 시기에 刊行된 것이라고 본다.

卷頭에는 江都內府舊藏이란 藏書記가 있다.

孟子集註, 朱熹(宋)註 [宣祖時?]

2册(零本)古活字本(癸酉政鑄甲寅字?) 35.2×22cm.
上品楮紙本

四周双邊, 半葉匡廓: 26.3×16.8cm. 10行, 1行18字.
注双行, 版心: 上下細花紋魚尾.

所藏本: 第9~10, 13~14卷(2册)外缺

孟子的 言行을 記錄한 책으로 宋의 朱熹가 集註한 것이다.

이 책은 2책 뿐인 零本이라 確실한 刊年을 알 수가 없으나 印面이 매우 고르고 雜活字가 거의 섞이지 않았으며 版心과 魚尾가 宣祖時에 유행하던 細花紋魚尾인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癸酉字'가 만들어진 후 얼마 아니하여 즉 임진란(1592)이전에 印出되었으리라 믿어지며 癸酉字의 표본인 大學或問(1574)과도 版心, 活字가 같은 것이므로 같은 癸酉字印本으로 추정된다.

정유

小學集說 卷5, 程愈(用)集說 [刊年未詳]
册(零本) 古活字本(癸酉字) 34.2×21.8cm

冊數改註 今葉匡廓: 26.2×16.7cm 10行, 1行18字
版心: 上下細花紋魚尾

中國 明代의 學者 程愈가 集說한 것인데 이 책도 앞서의 梅月堂集과 同一 活字에 屬하는 印本이다.

그리고 印面으로 보건대 補鑄나 木刻字가 混入되지 않은 것을 보면 比較的 初期 即 宣祖 16. 7年 頃의 刊本으로 推測된다.

光國功臣이란 李朝 宣祖때 宗系辨誣에 功을 세운 사람을 말한다. 1590年(宣祖23) 明나라 歷史에 李氏世系가 잘못 記錄된 것을 고친 功으로 내렸던 勳名을 말하는데 1등에 尹根壽, 黃廷彥, 俞泓 3名, 2等到 洪聖民, 李後白, 洪純彥 등 7名, 3等到 奇大升, 金澍, 李陽元, 等 9名이었다.

光國原從功臣錄

上坊邑監監(癸酉時),
[宣祖23年(1590)]
1册(20張) 古活字本(癸酉時校本活字) 37.7×22.8cm

冊數改註 今葉匡廓: 25.4×17.2cm. 10行, 1行17字
版心: 上下細花紋魚尾,
印: [袍命之字]

황화집

皇華集 [編者未詳] [宣祖35年(1602)]
1册(43張) 古活字本(癸酉年校本字) 34.7×21.8cm

冊數改註, 半葉匡廓: 25.7×17.2cm. 10行,
1行18字. 版心: 上下細花紋魚尾.

序: 嘉慶三十四年(1602)..... 沈嘉壽
肉題記: 嘉慶三十四年十月日 內閣編修原府院直督折儀諱
望華集 一件 命徐樹星
印: [宣祖23年]

皇華集은 中國 明나라 使臣이 우리나라에 올때 接待官과 화담한 시집. <詩經>의 「皇皇者華」에서 딴 것으로 臣자가 사신을 送방으로 功견하는 일을 擬作한 詩이다.

①宣祖(萬曆)壬寅皇華集 1卷 宣祖 35年(1602)册立皇太明萬曆30年(1602)子詔使顧

天堯 崔廷健 李好閔

以上에서 살펴 보건대 李仁榮氏의 말과 같이 甲寅字는 틀림없이 宣祖 6年(1573) 癸酉에 一大 改鑄되었던 것이 確實하며 따라서 그 印本도 많이 發見되고 있다.

이 癸酉字는 初鑄甲寅字에 比하여 字體는 形式에 호르고 字劃에 迫力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活字는 壬辰倭亂 以後에서 多少 남아 있었던 것으로 宣祖末年까지 印書에 專用된 흔적이 있다.

庚辰字

宣祖13年(1580) 庚辰에 銅活字를 다시 鑄造하였는데 이를 庚辰字라고 한다. 이 庚辰字는 앞서 宣祖 6年의 癸酉字와 同一視하여 이를 再鑄甲寅字라 부르고들 있다. 이것은 光海君日記 卷130, 10年戊午 7月22日戊申條에,

「鑄字都監啓曰 自平時 書籍印出專鑄字而 厥後庚辰先王又命改造甲印字 通行一國爲萬歲利 不幸一經兵火舊字蕩失 專用亦刻字體 舛訛刑缺 亦易施刻施削 功費

(癸酉字의 例)

命 大提 李河深傳以
 本朝 物之傑然者乎 鶴曆壬午秋
 前古 有一寸之可...
 千百代之上無不...
 命 雲閣印出其遺臺... 天其有特於今日乎
 時習於此可以無憾矣 翌年冬
 命 山海序其卷端... 以菲紙何足以印...
 公之言則可謂深得此章之指者矣 有國家
 者可不監哉 ○曰此章之文程子多所更
 明定而子獨以舊文為正者何也 曰此章之
 義博故傳言之詳然其實則不過好惡
 義利之兩端而已 但以欲致其詳故所言已
 足而復... 更端以廣其意是以二義相循
 間... 層出有似於易置而錯陳耳
 然徐而考之則其端緒接續脈絡貫通而丁
 寧反復為... 人深切之意又有別見於言外
 不可易也 必欲二說中判以顯相從自始至

하고 訓練都監에서 木活字를 만들어 使用하였다는 記事가 보인다. 卽 宣祖實錄 券164, 36年癸卯7月條에

「實錄印出之事 日急一日 而工匠不備均字極難 若得匠人十名 則可以日印二十文矣 今者功臣都監多有匠人 而托以錄券 使不得推移助役 功臣勘定三期尙遠 其前許令匠人來助印出之役 宜當且應中匠人 皆自訓練都監移來 而在都監時 役閑而料厚 今則只食八斗之料 日出而赴役 日沒而罷歸 皆懷厭若將有逃敬之弊 戶曹加給其料 使之厚其稟 而費其効耳 且印出之字 自內下賜及平壤字則皆是庚辰所造 而訓練都監字 則及乙亥所造 故大小體樣略不相似 不可混用 竊聞功臣都

倍蕤幸賴聖上留心 經籍思復舊制 特命結局 繼述列聖 右文之意 豈非今日之盛舉 干願其鎔冶細密 功役浩大而前後次知郎廳 盡心盡薰 一年以畢役 極爲可嘉 似有依例酬勞之事而係干見典 惶恐 敢細書啓」라고 하는 記事가 있어 宣祖 13 庚辰年의 改造事實을 確實히 알 게된 것이다.

그런데 金元龍博士는 「癸酉改鑄는 庚辰字의 鑄造를 위한 準備工作의 一部로 보고, 따라서 癸酉字를 없애고 庚辰字만을 宣祖時의 改鑄甲寅字 卽 再鑄甲寅字라 부르고 싶다」고 하였고, 金斗鍾博士도 癸酉字대신 庚辰字를 宣祖時의 改鑄甲寅字로 보시는 것 같으며, 李乘岐先生께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癸酉字本이 엄연히 存在한다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庚辰字의 問題에 대하여서는 다른 角度에서 再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여기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은 庚辰字가 確實히 甲寅字體의 改鑄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字體의 改鑄이나 하는 字體를 밝히는 일이다. 그런데 宣祖 6年에 甲寅字가 改鑄되었는데, 6年後인 宣祖 15年에 다시 改鑄하였다는 것은 어딘가 믿어지지 않는다. 萬一 庚辰字가 再鑄甲寅字라면 그것은 改鑄가 아니고 加鑄라야 할 것이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光海君日記에 「...庚辰先王又命改鑄甲寅字...」云云하였지만 이보다 앞서인 宣祖實錄의 記事를 綜合해 보건대 그것은 改鑄甲寅字가 아니고, 오히려 改鑄乙亥字인 것같이 생각된다. 그 理由로서는 첫째로 壬辰亂後 實錄印出에 있어서 庚辰字를 使用하려고 하였으나 大小活字의 不足으로 使用되지 못

監有庚辰字云 以乙亥字換用何如云云...」이라는 記錄이 나오는데 이를 要約하던 前略...王께서 實錄印出에 대하여 말씀하시고...한편 印出字에 관해서는 「內府不賜 및 平壤字는 모두 庚辰에 鑄造한 것이며, 또 앞서 乙亥에 만든 訓練都監字는 그 體樣이 크고 작아서 서로 같지 않아 混用할 수 없다. 듣건대 功臣都監에 庚辰字가 있다고 하니 乙亥字와 바뀌어서 使用하는 것이 어찌하나고 하였다. 여기서 注意깊게 살펴 볼 것은 內府下賜와 平壤字는 모두 庚辰에 鑄造한 것이라한 것과 宣祖 32年 乙(丁?)亥所造의 訓練都監字가 木刻字라는 것이며, 功臣都監에 庚辰字가 있다고 하니 乙亥字와 換用하라고 한 말을 보던 이 記事의 內容에 모순이 없지 않지만 壬亂後 庚辰字를 功臣都監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事實인 것 같이 생각된다. 이것만으로는 庚辰字의 本體를 알 수 없으므로 諸記錄과 實物의 例를 들면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日本學者인 田川孝三氏가 萬曆18年(宣祖23) 9月 日...司憲府 掌令張雲翼에게 內賜한 記錄과 「宣賜之記」의 印이 찍혀 있는 孝經大義諺解와 小學諺解를 發見하여 이를 庚子字本으로 斷定라고 이에 對한 論文을 朝鮮學報 第27輯에 發表한 바 있다. 그런데 宣祖實錄 券174, 37年 甲辰 五月條에 보면

「平安道觀察使命金信元狀啓 孝經大義十五件 平壤府活字印出 欲備乙覺粧續投進事」라는 記事가 실려있다.

이 記事에 보이는 孝經大義는 庚辰字의 鑄造年代보다 24年이나 뒤의 일이며, 田中氏가 提示한 萬曆18年의

內賜記가 있는 「孝經大義」보다 14년이나 뒤이다. 그러나 이것은 庚辰字와는 아무런 關聯性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前掲한 實錄 36年 癸卯 7月條에 「自內下賜及 平壤字則 皆是庚辰所造 云云」한 것을 보면 庚辰字가 平壤에서 鑄造된 活字인지, 그렇지 않으면 庚辰字와 平壤字가 同一 活字인지, 實錄의 記事대로 따진다면 庚辰字와 平壤字가 各기 다른 活字이며 多같이 宣祖13年 庚辰에 鑄造된 活字인 것으로 解釋되는데, 그렇다면 이 두 活字가 같은 乙亥字體의 活字인지 그 解釋이 어렵다.

그러나 平壤字가 乙亥字體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따로 있었던 것만은 確實하다. 다만 이 活字의 究明은 「孝經大義」가 發見되어야만 그 字體의 特徵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對하여는 後日의 研究로 돌리고자 한다.

어쨌든 田川氏에 의하여 처음으로 庚辰字印本이 밝혀진셈인데 氏가 提示한 庚辰字印本 孝經大義의 크기는 大體로 35.4×24.5cm, 匡郭은 25.2×18.1cm. 四周雙邊이고 版心은 白口…上下는 左右三眠魚尾(細花紋)라고 하며 그리고 本文孝經大義와 經傳은 5行10字 大義는 10行19字, 註는 小字雙行 大中小3種의 活字를 使用하였다고 한다. 實物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仔細한 檢討가 어려우나 同論文에 插入한 寫眞을 통하여 보는데 版式은 宣祖時에 流行하던 形式이며 字體도 틀림 없는 晉體이나 甲寅字와는 어딘가 다른 點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 刊年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이 庚辰字임이 確實하다고 본다. 그러나 田川氏는 이 字體를 甲寅字系列의 活字로 보고 있는 듯한데 筆者는 이 冊의 實物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寫眞을 통하여 보니 그것은 甲寅體의 活字가 아니고 오히려 乙亥字系列의 活字이다.

그렇다면 庚辰字를 乙亥字의 改鑄로 보아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宣祖實錄 第210, 40年 4月 乙亥條에, 「以內出式經七書 傳干柳公亮曰 此武經七書不軼 其不軼之券 有處求得 全軼二三件 以乙亥庚辰字 刻日印出入內」

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이것으로 庚辰字가 乙亥字體임을 確實히 해 주고 있다. 이 乙亥庚辰字로 印出하였다는 所謂 武經七書를 發見하는 일이 이 活字의 特色을 確實히 알 수 있는 열매가 될 것이다. 武經七書는 中國의 兵法에 관한 七種의 冊으로서 곧 六韜, 孫子, 吳子, 司馬法, 黃石公의 三略, 尉繚子, 李衛公問對의 總稱이므로 武學七書가 부르기도 한다. 筆者는 一簣文庫本中에서 宣祖年間에 印出된 것이라고 生覺되는 六韜直解 一冊을 發見할 수 있어 그 版式을 調査하여 보니 다음과 같다.

六韜直解, 券1~3, 呂望(周)撰, 陸德明(唐)釋解(宣祖時?)

1冊(零本) 古活字本(庚辰字) 33.2×20.8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2×15cm. 9行, 1行17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版心書名: 六韜, 印: [宣賜之記]

이 冊은 內賜本이나 不幸히도 改裝되어 內賜記가 없어졌다. 그리하여 그 年記를 알 수 없으나 版式에서 보는데 宣祖時의 刊本임이 分明하며, 따라서 實錄의 記事대로 宣祖40年刊本인 것으로 생각한다. 字樣은 乙亥字體이며 補疇 또는 마모된 活字가 많이 눈에 뜨인다. 印面이 一律치 못하지만 壬亂以後에 印出된 책이라 그 면모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庚辰字를 功臣都監에서 保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保有使用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筆者는 최근 壬辰以前의 印本인 平難功臣會盟錄 1冊을 빌려 볼 수가 있어 이를 考察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比較的 깨끗한 乙亥字體印本인데 그 版心은 다음과 같다.

平難功臣會盟錄, 功臣都監 宣祖23年(1590) 1冊(37張) 古活字本(庚辰字) 36.2×22.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9.8×17cm. 10行, 1行19字, 版心: 上下細花紋魚尾(燼餘本임)

平難功臣은 李朝宣祖때 鄭汝立의 난을 평정한 공신이다. 1등은 朴忠愍, 李軸, 韓應寅 등 3人, 2등은 閔仁伯, 韓漸, 鄭澈, 李山海 등 12人, 3등은 李憲國, 崔滉, 李恒福 등 7人으로 모두 22名이 었다. 1590年(선조23) 8月 15일에 임금은 이들에게 敎書를 내라고 功臣會盟祭를 열었다.

이 冊은 當時의 會盟祭文이다. 이 會盟文의 券頭에 보면 「維萬曆歲次庚寅八月庚午朔二十(缺港)……의 會盟祭日이 적혀 있다. 萬曆庚寅은 宣祖23年에 該當되며 이것은 庚辰字가 만들어 진 宣祖13年보다 10年뒤에 印出된 것이다. 그런데도 本亥字는 比較的 보기가 드물고, 勿論 字體나 字樣은 田川孝三氏가 提示한 孝經大義와 小學諺解와 同一한 活字本임이 確實하다.

다음은 가람文庫本 「詩經諺解」이다. 勿論 乙亥字體인 庚辰字印本이다. 그러나 原字는 극히 小數이고, 大部分이 本刻字이다. 그런데 表紙 뒷면에 貼付된 附箋에 內賜記가 轉載되어 있는데 그 年記는 萬曆41年(光海君 5年)으로 되어 있다. 印面이나 版心의 形式으로 보아 光海君時代의 印本임을 의심치 않으며, 따라서 改鑄乙亥字體인 庚辰字가 거의 그 자취를 감출 무렵의 印本이다.

詩經諺解 券 1~3, 宣祖命撰, 光海君 5年(1613)?

1冊(零本) 古活字本(庚辰字 文木字)

34.4×21.1cm

四周邊變 半葉區郭 24.6×15.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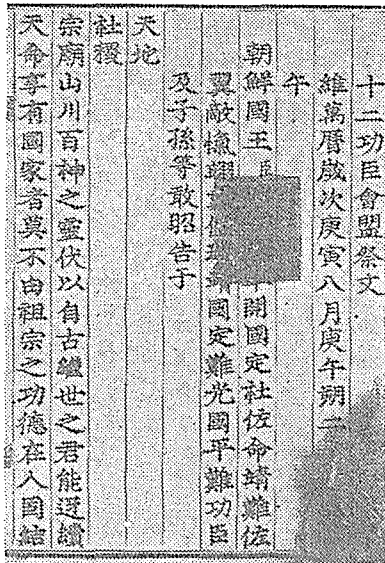
10行 1行19字 注變行 版心：上下花紋魚尾

附箋內題記：萬曆41年9月 日…江華上.

以上 庚辰字에 關係되는 諸記錄을 綜合考察하고, 또 韓印本의 實物을 찾아 보니 그것은 改鑄甲寅字가 아 니고 오히려 改鑄乙亥字임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光海君日記에 「庚辰先王又命改鑄甲寅字」云云한 것은 癸酉字를 잘못알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庚辰字를 甲寅字의 改鑄로 誤記한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庚辰字는 乙亥字의 改鑄임을 다시 한번 確信 하며, 以上 例示한 印本外에도 더 많이 發見되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世祖元年の 乙亥字와는 字樣上 어떠한 變化를 보여 주고 있으나 그 特徵을 밝히는 것이 乙亥字 本과 庚辰字印本과를 區別하는데 基準이 되리라. 庚辰字는 乙亥字體이지만 字劃이 形式에 흐른 感을 주며 字樣도 곰치 못하다. 특히 가장 혼란 字인 也字에서 確實히 字樣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版心은 例外 없이 上下細花紋魚尾이라는 것이다.

<庚辰字의 例>



戊午字(一名光海君銅字)

다음은 壬亂後 처음으로 鑄造한 金屬活字인, 所謂 三鑄甲寅字(또는 戊午字라고도함)에 對하여 알아 보기 로 하자.

光海君實錄 130卷, 10年 7月22日條에 依하면, 光海君 9年 戊午(1617)에 鑄字都監을 設置하고 活字의 鑄造 事業을 始役하여, 同王 10年 7月에 그 工役을 끝마쳤 다는 報告와 함께 施價에 關한 記事가 실려 있다. 이 때에 만들어진 活字를 三鑄甲寅字 또는 戊午字라고 한

그런데 이 때에 活字로써 印刷한 版本이 極히 稀觀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顯宗 9年 金佐明이 守禦使로 있을 當時에 銅活字를 鑄造한 일이 있는데 이 때의 實錄記事에서 「校書館鑄字는 壬辰兵亂에 散失되고, 뒤로 는 更鑄가 不能하여 本字만을 使用하였다」고 記錄되어 있어, 이 活字의 鑄造를 認定치 않는 분도 있다.

即 金斗鍾博士는 光海君 時代부터 顯宗時에 銅活字가 생기기까지의 約 50年 동안에는 印出된 銅活字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點을 最大의 根據로, 光海君 時代의 鑄字事實을 全혀 無視하고 있으며, 實錄以外的 다른 資料에도 이 戊午字의 鑄造事實에 關한 記錄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對하여 金元龍博士는 “光海君日記의 記事는 嚴然한 畢役報告이며, 動議가 아니니, 비록 現物은 남아 있지 않더라도 鑄字事業은 實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戊午字의 鑄造事實을 主張하고 있다.

筆者의 所見에도 이 活字의 鑄造에 關한 畢役報告와 함께 施價할 것을 奏請한 記事가 實錄에 엄연히 실려 있는데, 그 活字印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쉽사 리 鑄字事實을 否認하기는 困難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金元龍博士의 主張에 따라 이 活字의 鑄造事實을 確信하고 問題를 檢討기로 하자. 그렇다면 이 活字의 字本은 어떠한 것이며, 同時에 印出된 書籍은 무엇인지? 이것만 알 수 있다면 問題는 解決되는 셈이 다.

金元龍博士는 光海君 銅字의 字體를 처음에는 甲寅字體를 模倣한 것으로 보았다가, 뒤에는 이를 正정하여 그 字體는 未知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筆者의 생각에는 이 活字도 亦是 甲寅字體를 字本으로 하여 新鑄한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때까지 甲寅字體보다 뛰어난 字樣도 없었고 또 前揭한 光海君日記의 記事에도 「先王又命改鑄甲寅字 通行一國 爲萬世之利」云云한 것을 보면 이 活字도 亦是 甲寅字體를 字本으로 하여 鑄字한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어쨌든 이 活字印本을 發見해야만 問題를 究明하는 열세가 되겠는데 光海君 銅活字로 印刷한 版本이 어떤 것인지? 이 活字의 鑄字跋을 가진 印本이나 그렇지 않으면 同年間에 印出했다는 記事가 있다면 그 書籍의 活字本을 얻어 實査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記錄도 發見되지 않아 이 活字의 標本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데 얼마전에 서울大學校出版部支配人 柳時溥先生任의 厚意로 所藏本 天啓三年(仁祖 1年)의 內賜 甲寅字體 印本인 書傳大全1冊을 實査할 수 있는 機會를 얻게되어 戊午字의 標本을 發見하게 된 것이다.

書傳大全은 儒教經典의 하나로 옛날에는 「書經」라

했고 漢代에는 「尚書」라 했으며 宋以後에는 「書經」이라 했다. 內容은 虞書, 夏書, 商書, 周書로 나누어 있고 各代의 史官의 記錄이라하나 實은 魯나라에 傳한 周公에 관한 記錄이 中心이 되었으며 儒學者들 손에 의하여 여러가지 記錄이 첨가되어 現行本이 되었다 한다. 이 書傳大全은 明의 胡廣 등이 王命을 받아 編한 것이다.

호광, 편

書傳大全 卷1 胡廣(明)等受命編 [仁祖 1年(1623)] 1册(零本) 古活字本(戊午字) 36.5×22.2cm

四周邊邊 半葉匡廓 : 26.7×17cm. 10行. 1行 18字. 注双行. 版心 : 上下細花紋魚尾.

序 : 嘉定己巳(1209)……蔡沈

內賜記 : 天啓三年六月 日 內賜司諫院司諫鄭澐書傳一件命除謝恩. 右承旨臣權 [手決]

印 [宣賜之記]

卷末數張落張

內賜記에 적혀있는 鄭澐으로 말하면 1569(宣祖 2)~1642(仁祖 20) 李朝 仁祖때의 名臣으로 字는 輝遠, 號는 桐溪. 諡號는 文簡, 本관은 草溪, 惟明의 아들이다. 1610年(광해군 2) 별과에 급제, 司諫院正言에 있을때 永昌大君의 죽음에 對하여 光海君에게 상소. 鄭沈을 참수하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로 因하여 10年間 大靜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仁祖反正 후에 다시 벼슬에 나가 1636年 胡亂때 南漢山城에서 和議를 적극 반대하였고 다음 해 정월 和議가 成立됨에 분하여 할복자살을 기도했다. 南漢에서 죽어 국은에 보답 못한 것을 한탄하여 고향에 가지 않고 德裕山에 가서 있다가 죽었다. 이조 판서를 추증. 廣州顯節寺에 제사했다.

이것은 앞에 例示한 癸酉字와도 판이한 活字이며, 顯宗 9年의 戊申字와 比較해 보아도 그 字樣이 相異하다. 다만 이 冊에 鑄字跋이나 刊記가 없으나 內賜記로써 戊午字의 標本이라고 提示하기에는 不充分 할런지 모르나 이 印本에 補鑄 혹은 木刻字가 한字도 混入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新活字가 大대의므로 鑄造된 뒤 얼마 아니 되어 印出된 冊이 틀림없다고 본다.

그러면 癸酉字와는 그 字

樣에 어떠한 變化가 생겼는가 알아 보기로 하자.

六體로 보건데 字體는 形式에 흐른 感을 주며 劃이 多小 가늘고 글字가 약간 작다. 그리고 字樣에 있어서 는 於, 以, 所字에서 보던 確實히 區別된다.

그런데 이 活字의 印本이 많이 發見되지 않는 理由는 仁祖 2年 甲子(1624)의 李造亂, 또 仁祖 14年의 丙子胡亂(1636)때에 모두 散失되었을 것이니 길게 보아도 17年間 밖에 印書에 使用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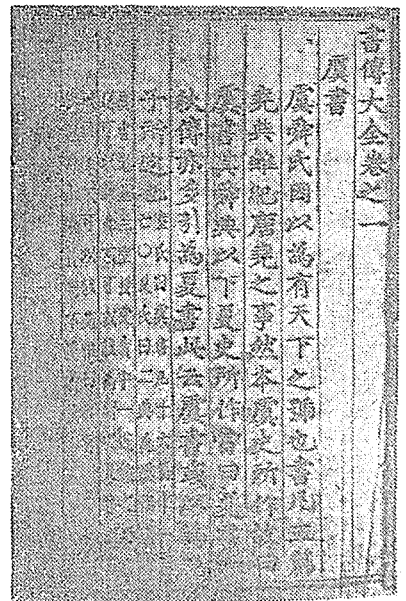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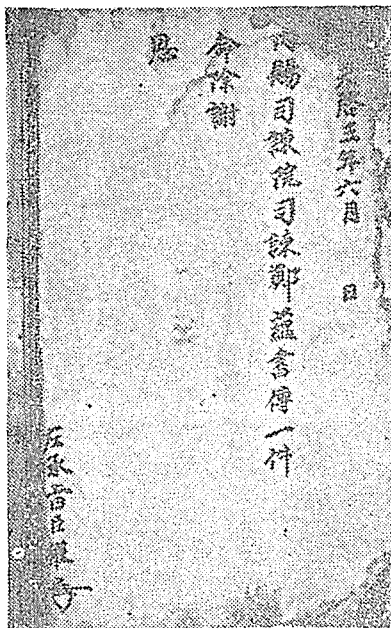
그리고 光海君 末期의 失政과 仁祖 以後의 國內外政勢等으로 미루어 書籍의 印行도 活潑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을 것인즉 이 活字의 印本도 많이 流布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壬亂以後의 書籍이 丙子胡亂으로 大部分 散失되고 말았으니 現存하는 이 活字印本이 極히 적을 것 만은 事實이다.

結 論

以上에서 宣祖 6年 癸酉字의 鑄造는 甲寅字의 一대 改鑄이 있으며, 이 癸酉字야 따로 改鑄甲寅字인 것이다.

그리고 宣祖 13年 庚辰의 鑄造는 지금까지 이 活字의 字母를 甲寅字體로 誤認하여 왔는데 그것은 오히려 乙亥字體라는 것이다. 다만 그 字體가 本來의 姜希顔書의 乙刻字體가 무너지고, 얼른 보기에 甲寅字體와 같은 것으로 보기 쉬우나 어디까지나 乙刻字系列의 改鑄活字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庚辰字를 癸酉字와 같은 甲寅字體의 改鑄로 알았기 때문에 이 鑄字說에 右往左往했던 것으로 본다.



(59面에 繼續)

으로 李朝太祖부터 世祖에 이르는 歷代 重要 事件別로 項目을 세워 그 總말에 관한 史料를 收錄한 記事本末體의 野史로써 1卷이 太祖 故事本末, 2卷의 太祖, 定宗, 太宗, 3卷이 世宗, 4卷이 文宗, 端宗, 5卷이 世祖 故事로 되어 있고 各卷마다 事件과 人物을 가름해서 記述하였다. 附錄으로 燃藜室記述原文 收錄.

K911.05 D 95A.[05]

990 地 理

朴 東 奎

異邦人과의 對話 經人社 1966 324p 19cm 350원

前農銀, 産銀總裁이며 財務部長官을 지낸 著者가 작년 이래 세 차례에 걸친 世界旅行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적은 紀行文 56篇을 收錄.

K 980.24 D 910.41

한글 학회

한국 地名 總覽 1 —서울편— 同 학회 2月 280p 圖地圖 26cm 1,000원

서울市內의 各種 自然 및 人工 地名 約 1萬토막을 收錄하여 거의 字體를 갖추어 가는 작은마을, 뜰, 산, 내와같은 이름까지도 包含하여 發源, 由來, 變遷, 過程, 주위 환경 그밖에 地名과 關係되는 여러 事項을 자세히 풀이해 주고 있다.

K 981.102 D 915.A[02]

99 傳記(各傳)

朴 正 熙

金 牧 九 編著

傳記 朴正熙 一人間과 經世— 教育評論社 1966 331p 19cm 500원

朴正熙 大統領의 出生부터 近來 大統領職을 맡은 후 그의 生活像과 行蹟을 叙述하고 있다.

K99 D 92

聖 바오로

Baumann, Emil

聖바오로傳/眞理의 使徒 에밀 보오만 著 이 바오로 譯 聖바오로출판사 1966 354p 19cm 300원

基督教 使徒중의 1人으로 원래는 바리새인인데 수 受洗후에 改宗하여 예수교 신자가 되었고 예수교 初대 敎회의 創設者인 聖바오로의 生涯를 엮은 傳記이다.

K 99 D 92

李 御 寧

하나의 나무잎이 흔들릴때 玄岩社 1966 258p 19cm 300원

著者의 어린 時節을 생각해하는 많은 挿話들을 自傳의인 글로 女像誌에 連載했던 것이다. “바나나·팬터마임” “나의 善惡果” “그림자들” 外 17篇 收錄.

K 99 D 92

(32面에서 繼續)

宣祖實錄에 癸酉字와 庚辰字의 鑄造에 關한 記事가 실려 있지않고 또 壬亂以後의 鑄字에 關한 記事가 그와 같이 애매하게 記錄된 것은 實錄의 編纂에 있어서 基本資料인 春秋館의 時政記承政院日記 其他 各司謄錄等 國家記錄이 壬亂時에 모두 喪失되었기 때문에 壬亂以前의 史實은 史官의 記憶을 더듬어 記錄한 것과 朝報政國 그리고 個人의 日記 및 野史에서 추려 編纂한 것이니 壬亂以前의 記事는 簡略하고 以後의 것은 記事가 粗雜하여 歷代實錄中 가장 나쁘게 編纂된 것이다.

그러니 實錄에 癸酉字 庚辰字의 鑄造에 關한 記事의 漏落은 이와 같은 理由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 光海君 10年 戊午 鑄造活字는 光海君日記에는 그 鑄造事實이 記錄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鑄字를 否認하는 이가 있게 되었고 또 그 印本의 標本을 發見치 못하여 그 字體를 確認치 못하였던 것인데 이제 天啓年 內賜記의 書傳을 發見하게 되어 이 活字의 問題도 解決된 것으로 본다.

<參考文獻>

- 古銅活字冊標本書目. 서울, 1952.
- 朝鮮古活字版捨葉. 京城, 昭和19(1944)
- 金斗鍾. 書體上으로 본 近世朝鮮活字體의 變遷書誌 1:1 p19—29, 1960.
- 金元龍. 李朝後期の 鑄字印刷. 郷土서울 7. p7~66, 1959.
- 金元龍. 韓國古活字概要. 서울, 1954, 36, 15p
- 李仁榮. 文線役直前の朝鮮活字. 書物同好會會報 18, p1, 12—14, 1943.
- 李仁榮. 乙刻字小攷. 書物同好會會報 17, p26~29, 1942(昭 17)
- 田川孝三. 庚辰字本孝經諺解と小學諺解. 朝鮮學報 第二十七輯.
- 金斗鍾 解說. 韓國活字印刷本 展示目錄. 1954.
- 白 麟. 韓國 古活字本에 對한 研究. 서울大學校圖書館報 3, p3~51, 1965.